

2008년 상반기 분리발주 수주 현황 분석



분리발주는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1989년 협회가 창립된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 끊임 없는 건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2008년 상반기 동안 회원사의 분리발주 수주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하반기 분리발주 수주 전략 다각화를 모색코자 한다. [편집자 주]

2008년 상반기 분리발주 수주 현황

2008년 상반기(1월~7월 말 현재) 동안 대한설비건설 협회 회원사들이 분리발주 수주를 받은 공사는 462건으로 1천6백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분리발주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23건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 299건, 대학교 48건, 한국지역난방공사 12건, 지자체 및 개별발주 63건, SH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36건에 공사금액은 51,916,767,48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4건 25,228,053,392원, 광주·전남 51건 19,405,918,383원, 대전·충남 66건 12,022,984,804원, 경북 18건 8,475,756,703원, 인천 43건 8,115,807,518원, 강원

64건 7,705,116,077원, 대구 24건 5,702,821,573원, 충북 3건 4,556,897,888원, 부산 24건 3,745,753,584원, 제주 6건 523,479,180원이다.

이 중 2건 이상 수주한 회원사는 서울지역의 지에스네오텍(주), (주)정림기연, (주)광장설비 3개 업체이고, 부산은 대신산업설비(주), 동진건설(주), 원기산업(주), (주)풍원기공 4개 업체, 대구는 광진기공(주), 영진개발(주)의 2개 업체, 인천은 두준건설(주), 신한종합설비, 씨에스건설(주), (주)범양플랜트, (주)이안, 중앙종합기계(주) 6개 업체, 광주·전남은 (주)부경개발건설, (주)산정, (주)천일개발, 하남기업(주) 4개 업체, 대전·충남은 부경엔지니어링(주), 장원산업개발(주), (주)금영이엔지, (주)대웅진, (주)대한엔지니어링, 장원산업개발(주), (주)서해엔지니어링, (주)신보엔지니어링, 주암건설(주),

(주)충남설비, 투에이티엔씨(주) 11개 업체, 울산·경남은 대운산업(합), (주)대광공영 2개 업체, 경기도는 성봉건설(주), 신호산업개발, 옥산기공(주), 우당기술산업(주), 조은건설(주), 준엔지니어링(주) 6개 업체, 강원은 (합)한일설비, 경동기계설비(주), 용진엔지니어링(주), 원웅산업(주), 은하설비(주), (주)그린텍, (주)동호엔지니어링, (주)보아스건설, (주)신양엔지니어링, 정보이엔지개발(주), 핵진건설(주) 11개 업체, 전북은 (주)나노, (유)신세계이앤시, (유)지오건설, (주)대창엔지니어링, (주)파라오, 진성산업(주) 6개 업체이다.

분리발주 최고 금액은 무경설비(주)가 수주한 주공 성남판교 쓰레기이송설비공사 1공구로 공사금액은 6,212,340,320원이며, 최저금액은 삼영설계기술(주)이 수주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층 내부 구조변경공사로 9,418,070원이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년간 분리발주 수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추진 사항

국내의 건설공사 발주체계는 통합발주가 원칙이고, 기계설비공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되었으며, 기계설비전문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사로서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기계설비공사가 최초로 분리발주된 사례는 1986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된 옥외기계설비공사이다.

주택공사에서 발주된 옥외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한 설비건설업체는 처음으로 설비건설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지위를 맞보았고, 이것이 설비건설업계의 위상강화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대한설비공사협회 태동의 모티브가 되었다.

지난 1989년 대한설비공사협회가 설립된 이후 협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법적근거 마련에 전력을 쏟기 시작했다. 협회는 지난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 기계설비공사를 국민제안으로 건의하였고, 그 당시 건설단체와 재정부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 발주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

▲ 발주처 별 분리발주 수주 현황

발주처	건 수	금액(원)
대한주택공사	32	56,684,623,261
대학교	48	14,956,115,474
시·도 교육청	299	28,040,989,092
SH공사	6	6,427,445,679
지자체 및 개별발주	63	32,488,447,863
한국지역난방공사	12	26,435,497,309
한국가스공사	2	1,555,550,000
총계	462	166,688,668,678

▲ 지역별 분리발주 수주 현황

발주처	건 수	금액(원)
서울	36	51,916,767,480
부산	24	3,745,753,584
대구	24	5,702,821,573
인천	43	8,115,807,518
광주·전남	51	19,405,918,383
대전·충남	66	9,310,207,115
울산·경남	20	12,022,984,804
경기	64	25,228,053,392
강원	64	7,705,116,077
충북	3	4,556,897,888
전북	43	9,879,104,981
경북	18	8,475,756,703
제주	6	523,479,180
합계	462	166,588,668,678

한 법적 근거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협회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한 결과 2000년에는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협회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협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한 설비건설

업체가 성실한 시공과 우수한 품질로 발주기관에 보답할 때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사 모두 분리발주된 설비공사를 수주할 경우, 다음을 위하여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정부 기관의 행정조치

기 관	내 용	일 자
행정쇄신위원회	하도급에 의한 기계설비 시공은 정밀시공 및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함으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계설비공사는 분리발주도록 결정	1994. 4.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기계설비공사의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타공사와 분리발주도록 각 발주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2000. 5. 24
교육인적자원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타공사와 분리발주도록 산하 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2001. 3. 9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분리발주 금지요건을 완화하고 발주기관의 판단여지를 넓히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개정을 결정	2001. 12. 12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건설경제 업무편람"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건설경제 업무편람"에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로 "설비공사"를 명시함	2006.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상급 기관에 보고를 제외토록 함	2007. 9. 20

향후 분리발주의 변화와 전망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19일에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발표들은 설비건설업계의 분리발주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은 주공이 향후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의 새이름으로 원도급사의 종합관리기능을 발주기관에 넘겨 건설사의 중간이윤을 없애고, 바로 시공사에게 발주(직영공사방식)함으로써 15%의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 직영공사방식은 기존의 발주기관 → 종합공사사업자(원도급) → 전문공사사업자(하도급)로 짜여진 3단계의 시공절차에서 발주기관 → 시공사(원·하도급 포괄) 구조로 바꾼 발주제도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향후 확대, 보

급이 예상된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장점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의 내용 중 부설시공 시 타공종과 같이 소비자의 단순 민원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에너지 낭비 등에 의한 운전경비의 증가, 설비의 LCC 수명의 단축에 의한 유지비, 개보수 비용의 증가 등 국가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양질의 설비시공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분리발주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분리발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설비 비용의 투명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의 불평등성에 의하여 취득하는 비용(대량 공사비의 15~30%)의 절감이 가능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금액의 절감이 가능하고 설비분야에 집행된 비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즉, 발주자가 집행하는 예산이 공사에 직접 투입되어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정부 기관의 행정조치

시행연도	기 관	주 요 내 용
1986	대한주택공사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1995	부산광역시	도로사업소, 녹지사업소 분리발주 시행
1998	정보통신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용산국립박물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1999	대한주택공사	가스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2000	SH공사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2000	한국담배인삼공사	분리발주 시행
2001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국립대학 등 94개 기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지시 공문 시달
2002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 시범 분리발주(용인 마평, 남양주 호평)
2003	한국토지공사	분리발주 시행
2006	KT	목동 IDC 기계설비공사 발주(분리발주 최초 시행 : 1999년)
	한국지역난방공사	60억원 미만 열배관매설공사 분리발주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열병합수산지원센터 공사 분리발주
	인천도시개발공사	쓰레기관로 이송설비공사 분리발주
2007	KBS방송국	춘천방송총국사옥 분리발주
	인천광역시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

저가하도급에 의한 예산누수 현상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설비의 품질 보증

설비분야의 부실시공 시 에너지 낭비 등의 운전경비가 증가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짐에 따른 유지비 및 개·보수비 증가와 같은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분리발주 시행에 의하여 단순히 법정기간 내의 하자방지 뿐만 아니라 설비 라이프사이클 기간 동안의 하자, 개·보수 시 재시공까지 염두에 두고 양질의 시공을 통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과 성능이 보증된 설비가 가능하다.

또한 공개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원·하도급 계약금액의 차액이 시공비용 부분에 투입됨에 따라 공사품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③ 계약제도의 선진화

농수산물, 제조품 등은 유통단계의 복잡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데, 이는 건설업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기술적 체계가 상이한 설비분야는 분리계약을 통해 유통구조 단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술·시공의 전문화

기계설비는 건축과 학문적·기술적 체계가 다르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체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설계자격 조건도 과기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발주관서의 감독체계 또한 건축공종과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공종과 상이한 설비분야의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체계의 전문화를 유도한다.

⑤ LCC에 의한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

기계설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발주단계부터 LCC를 고려하며, 적정 공사비 지급에 의한 설비수준의 향상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⑥ 중소기업 보호 육성

분리발주 시 발생하는 공사비용의 차액이 중소기업인 설비건설업체로 보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설비관련 기술의 개발과 기술력이 향상되고 우수인력이 설비건설업으로 진출되어 설비건설분야의 발전에 의해 건설산업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⑦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기어음 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이중계약에 의한 비자금 형성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발생의 원천적인 소지를 제거한다. ●